

## 자비로운 제2 대 달라이 라마 계둔 가초께서 정리하신 아라빠짜나 문수보살 수행 허가 의식집

### 날마다 하는 기도

존귀한 문수보살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여: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제가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예경하겠습니다.  
보시를 비롯해 제가 지은 여러 공덕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가 되게 하소서. (3번)

모든 중생 행복과 행복의 씨앗을 지니게 하소서.  
모든 중생 고통과 고통의 씨앗에서 멀어지게 하소서.  
모든 중생 고통이 없는 행복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모든 중생 친소의 애착과 분노에서 멀어져 평등에 머물게 하소서. (3번)

특히 어머니였던 모든 중생을 위해 빨리 바르고 원만한 부처의 경지에 최선을 다해  
이를 것이다. 그러기 위해 일체를 아시는 지혜의 본신(本身)인 존귀한 문수보살을  
명상하고, 진언을 독송하고, 공양하고, 찬탄할 것이다. (3 번)

스스로 본존(本尊)이 된다.

옴 쑤뵤와 슯다 짜르와 다르마 쑤뵤와 슯도 함.  
공성에서 ‘뵤’이 나타난다. (‘뵤’은) ‘연꽃이 되고 (‘연꽃’은) ‘아’가 되고 (‘아’는) ‘달’이  
된다. 그 위에 내 마음 본연인 적황색의 ‘디’가 나타난다. (‘디’는) ‘디’가 새겨진  
‘검’으로 변한다. ‘검’이 뿜어내는 빛은 두 가지 뜻을 이루고 다시 되돌아온다. (빛은)  
햇살이 가득한 적황색의 존귀한 아라빠짜나 문수보살로 변한다.

오른손으로는 검을 쥐고, 우담바라 줄기를 권 왼손은 가슴에 두었다. 왼쪽 컷가에서  
만개한 우담바라, 그 위에는 반야부 경전이 놓여 있다. 32 상호를 갖추고 천신의 옷을  
입고, 보석으로 치장했다.

열여섯 살 젊은이의 모습에 머리카락은 다섯 가닥으로 묶고 결가부좌를 하고 있다.  
문수보살 정수리에서 백색의 ‘옴’, 목에서 적색의 ‘아’, 가슴에서 청색의 ‘훬’이  
흘러나온다. 가슴에서 ‘훬’의 빛이 나와 본연의 자리에서 관상하는 분과 닮은  
지혜존(尊)을 청하여 모신다. ‘자훬밤호’ 둘이 하나가 된다.

또다시 (나는) 빛을 내보내 관정을 주는 천신들을 청한다.  
“저에게 수행을 할 수 있는 자격과 힘을 주소서!” 하니 감로수를 정수리에 부으며  
자격을 주셨다. 이때 (감로수가 나의) 온 몸을 가득 채우며 더러움을 씻어낸 뒤  
정수리에 고인 물은 부동불의 (형상이 되어) 보관이 된다.

## 보병 관정

“옴 벤자 암릿따 끈다리 하나하나 흠 췌. 옴 쑤봐와 슯다 짜르와 다르미 쑤봐와 슯도 함” 보병이 공성으로 변한다. 공성에서 ‘밤’ 생겨나고, (‘밤’은) 보석으로 장식된 백색의 보병으로 변한다. 보병 안 물 위에 있는 해 방석에 놓인 ‘흠’은 진언(옴 벤자 암릿따 끈다리 하나하나 흠 췌)으로 둘러싸여 있다. ‘흠’에서 빛이 나와 시방의 모든 보살님의 가피와 위신력을 빛으로 청해 모셔 오니 보병 안 물에 녹아 든다. “옴 벤자 암릿따 끈다리 하나하나 흠췌.”을 백 회 독송한다. 진언은 빛으로 스며들어 보병 속 물과 하나로 어우러진다.

## 공양 올리기

(공양물에 축복을 한다.) 옴 벤자 암릿따 끈다리 하나하나 흠 췌. 옴 쑤봐와 슯다 짜르와 다르미 쑤봐와 슯도 함. 공성 상태가 된다. 공성에서 ‘옴’이 나타난다. (‘옴’은) 가벼우나 거대한 보석이 된다. 그 안에 ‘옴’이 녹아서 생긴 천신의 공양물들이 마실 물, 발 닦을 물, 꽃, 향, 등불, 향수, 음식, 음악이 된다. 공양물은 맑고 걸림이 없고 허공과 같이 무량하다.

옴 아리아 만주쉬리 짜빠리와라 아르감 뿌라띠짜 흠 쏘하 (마실 물)  
옴 아리아 만주쉬리 짜빠리와라 빠담 뿌라띠짜 흠 쏘하 (씻을 물)  
옴 아리아 만주쉬리 짜빠리와라 뿌슈빠 뿌라띠짜 흠 쏘하 (꽃)  
옴 아리아 만주쉬리 짜빠리와라 두후빠 뿌라띠짜 흠 쏘하 (향)  
옴 아리아 만주쉬리 짜빠리와라 아로께 뿌라띠짜 흠 쏘하 (등불)  
옴 아리아 만주쉬리 짜빠리와라 겐데 뿌라띠짜 흠 쏘하 (향수)  
옴 아리아 만주쉬리 짜빠리와라 네위데 뿌라띠짜 흠 쏘하 (음식)  
옴 아리아 만주쉬리 짜빠리와라 샹따 뿌라띠짜 흠 쏘하 (음악)

## 예찬

애착은 여의었지만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분노를 끊었지만 예리한 검을 지니고  
우치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경전을 들고 계시네.  
깨달음을 얻었지만 소년의 모습을 한 문수보살께 예경합니다.

## 진언 독송

가슴에 여섯 개의 바퀴살이 있는 황금색 법륜이 있다. 법륜 중앙에 달의 방석이 생겨 나고, 그 위에 마음을 의미하는 견고한 음절인 적황색 ‘디히’ 글자가 나타난다. 여섯 개의 바퀴살에는 적황색의 여섯 음절, ‘옴아라빠짜나’가 놓인다. 거기서 달빛과 같은 빛이 나온다. 온 몸을 가득 물들인 빛은 무지의 어둠을 전부 제거한다.

모공을 통해 쏟아지는 빛은 모든 중생의 우치를 제거한다. 부처님들께서 지니신 십력의 반야, 보살들의 특별한 지혜, 학자들의 강설, 강론, 저술의 지혜 등 세간과 세간을 벗어난 모든 지혜가 가슴의 진언으로 흡수된다. 진리와 현상에 대한 막힘 없는

지혜가 증장한다. (이와 같이 생각하고 ‘옴아라빠짜나디’ 진언을 독송한다.)

### 또르마 공양과 예찬

(본 수행을 하다가 잠시 휴식을 취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옴 벤자 암릿따 꾀다리 하나하나 흠 팻.

옴 쏘뵤와 슛다 짜르와 다르마 쑤뵤와 슛도 함.

공성이 된다. 공성에서 ‘옴’이 등장한다.

‘옴’은 보석으로 된 거대하면서도 가벼운 잔이 된다. 그 안에는 ‘옴’이 녹아 생긴 깨끗한 공양물인 지혜의 감로수로 가득 찬다.

옴아흠 (3 번)

옴 아리아 만주쉬리 짜빠리와라 이담바림따 카카 카히 카히 (3 번)

옴 아리아 만주쉬리 짜빠리와라 아르감 뿌라띠짜 흠 쏘하 (마실 물)

옴 아리아 만주쉬리 짜빠리와라 빠담 뿌라띠짜 흠 쏘하 (씻으실 물)

옴 아리아 만주쉬리 짜빠리와라 뿌슈빠 뿌라띠짜 흠 쏘하 (꽃)

옴 아리아 만주쉬리 짜빠리와라 두후빠 뿌라띠짜 흠 쏘하 (향)

옴 아리아 만주쉬리 짜빠리와라 아로께 뿌라띠짜 흠 쏘하 (등불)

옴 아리아 만주쉬리 짜빠리와라 겐데 뿌라띠짜 흠 쏘하 (향수)

옴 아리아 만주쉬리 짜빠리와라 네위데 뿌라띠짜 흠 쏘하 (음식)

옴 아리아 만주쉬리 짜빠리와라 샹따 뿌라띠짜 흠 쏘하 (음악)

### 예찬

애착은 여의었지만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분노를 끊었지만 예리한 검을 지니고

우치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경전을 들고 계시네.

깨달음을 얻었지만 소년의 모습을 한 문수보살께 예경합니다.

아라빠짜나 문수보살의 사dana와 후속 허가 의식집은 장로 다상뵤를 위해 제 2 대 달라이 라마 꺄상가초께서 말씀하셨고 최끼 뵤조르 렉빠가 문자로 기록했다. 2024 년에 양지애가 티베트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했다.